데스크 시각

이젠 G-컬처의 시대를 열자

박 진 현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로얄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평소 클래식를 즐기는 이라면 한번쯤 '직관' 하고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단이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국내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레전드들이 올 가을 앞다투어 부산을 찾는다. 지난달 20일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장으로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의 '월드 시리즈'에 서기 위해서다. 명품 악단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찾거나, 그것도 지방의 신생 공연장에서 릴레이 연주를 펼치는 건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클래식 패키지 대박 낸 부산

그래서인지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아래 피아니스트 조성진,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이구데스만 등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가한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은 일주일동안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부산관광공사가 표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개관 공연과 미술관 투어, 최고급 호텔 숙박, 미쉐린 레스토랑을 묶은 2박3일 패키지 상품은 1인당 240만원이라는 고가에도 조기 완판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2000석 규모의 빈야드(포도밭) 객석을 갖춘 명품 공연장과 꿈의 라인업이 이뤄낸 쾌거다.

게다가 오는 9월에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현대미술관의 초대형 전시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이 예정돼 있어 부산은 벌써부터 바다와 음악, 미술이 어우러진 예술관광의 성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열리는 세계 최초의 여성 추상화가 힐마 아트 클린트전은 지난 2018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역사상 최다 관람객인 60만명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래 세계적인 거장들을 초청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거둔 미술관들이 많다. 엊그제 4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극사실주의 화가 론 뮤익의 회고전(4월11일~7월13일)이 그중의 하나다. 미술관 개관 이래 단일 전시로는 최다 관람객인 50만명을 유치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인상적인 건 외국인 관람객이 눈에 많이 띄었다는 점이다. 취재차 기자가 방문한 날, 전시장은 그야 말로 인산인해였다. 덩달아 론 뮤익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이 야심차게 기획한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도 관람객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일부 외국인들은 "론 뮤익 보러 왔다가 한국미술의 매력에 푹 빠졌다"며 극찬했다. 김환기, 박수근, 백남준 등 스타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는 K-팝, K-영화, K-뮤지컬을 잇는 K-미술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획전과 달리 미술관의 컬렉션을 보여주는 상설전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가령, 파리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만나기 위해 루브르를 찾는 이치와 같다. 여기에 관람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아트상품과 미술관 주변의 상권까지 감안하면 '웰 메이드 전시'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고 보면 비엔날레의 도시임을 자부하는 광주의 '미술신'(scene)은 황량하기 짝이 없다. 여름 휴가시즌과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앞둔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15만명의 관람객을 모은 '겸재 정선'전을 끝내자 마자 오는 9월 세계적인 조각가 루이스 브루주아전을 내놓는 호암미술관과 국제아트페어 프리즈 서울(9월3~6일) 개막에 맞춰 '물방울 작가' 김창열 전시를 준비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허울뿐인 '문화광주' 내실 챙겨야

물론 블록버스터전이라고 다 좋은 전시는 아닐 터. 하지만 전국에서 열리는 수많은 전시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위해선 평범한 볼거리로는 시선을 끌지 못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최근 1~2년 사이에 내놓은 전시들이 이를 방증한다. 시대의 트렌드와 거리가 있는 동학, 민중미술 등 지나치게 무거운 주제들이 많아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 등의 빅 이벤트들과 시너지를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08년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 광주에서 열린 마지막 대형전시라는 사실은 시립미술관의 역할과 미술도시의 위상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미술 뿐만이 아니다. 클래식 전용홀은 고사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을 배출한 도시에 걸맞은 문학 인프라 역시 열악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문화강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무리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산업과 연계시키는 실용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비엔날레 도시, 노벨상의 도시 등 그럴싸한 타이틀이 많은 광주로서는 '문화로 먹고 사는' 미래를 고민해봐야 한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전에 'G(Gwangju)-컬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은펜칼럼

호남 유권자의 국민 주권 제대로 행사하기

최 영 태
전남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연구원장

민주당은 항상 호남을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 혹은 거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호남은 민주당을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강력한 대여 투쟁의 든든한 응원부대 역할을 하면서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한마디로 호남과 민주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역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치 동맹'을 맺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한 호남 유권자들은 아쉽게도 정작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는 대부분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한 인준투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의원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하는지도 모른 채 민주당 후보에 대한 '묻지 마 투표'를 행하였다.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할 경우 혹시라도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 방해가 될까 봐, 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가 될까 봐 그렇게 관행적으로 행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주도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일반 유권자를 진정한 주인으로 섬길 확률은 높지 않다. 반쪽짜리 경쟁 풍토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자기 연마에 게으름을 피우기 쉽다. 경쟁이 없는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제대로 존중받기가 어렵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초선이고, 민선 광주시장 중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선거 풍토가 계속되는 한 일반 유권자나 민주당 권리당원 모두 다음 선거 때도 과거처럼 '교체!' 소리를 반복할 것이다. 지역 정치 풍토가 이대로 계속되는 한 지역에 큰 인물이 나올 수 없고 지역 발전도 제대로 이루기 어렵다.

바람직한 개선책은 경쟁력 있는 제3당이 나와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당 후보를 놓고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정치 환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적대적인 거대 양당 구도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호남 유권자의 민주당에 대한 변함없는 일편단심 심리로 보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경선 룰을 바꾸어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반 유권자의 참여와 선택폭을 넓히자. 현재의 민주당 경선 룰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일반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 대 50%로 정하였다. 그 비율을 80%(일반 유권자) 대 20%(민주당 권리당원)로 대폭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제한된 조건에서나마 일반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야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권리당원 확보와 윗선 눈치 보기에 몰두하는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호남을 '천수답 지역'이라고 묘사했다. 지역에 우호적인 대통령이 나오면 차별이 조금 완화되다가 보수 정당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의 반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 권력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역에 우호적인 대통령을 뽑아도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줄탁동시'란 말처럼 지역이 발전하려면 호남에 우호적인 정권 창출과 호남 지역 선출직 지도자의 경쟁력 높이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책을 제시하라.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일반 유권자 대 권리당원의 참여 비율을 80%대 20% 수준으로 대폭 조절하라. 경선 룰의 변경은 내년 6월 지자체 선거를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윤석열 탄핵과 민주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시민사회단체와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역 정치 문화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기 고

감사(感謝)의 기적과 행복

이 동 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찬란한 아침 햇살을 보면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한다. 오늘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고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기쁨과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오늘에 감사하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긍정의 눈을 떠서 시야를 넓히고 배려의 귀를 열어 소통의 길을 열어 둔다. 그리고 나에게 말한다. 오늘 내 이름 불러주는 이 있어 감사한다. 내 부르는 소리에 대답해 주는 이 있어 감사하고 내 곁에 당신 같은 이 있어 감사한다. 예쁜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베품은 가슴에 남는다. 이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본다.

감사가 안겨 준 기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위너스 솔맨(1892~1968)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Head of Christ'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다.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될 즈음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 진단을 받은 그는 "길어야 석달 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임신중인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다.

그가 매일 절망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여보, 3개월 밖에 못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3개월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라고 말했다.

솔맨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에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Head of Christ'를 감사하면서 그렸는데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다. 주치의 존 헨리는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라고 물었다. 솔맨은 다른 약을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준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주치의는 "바로 그것이 명약"이라며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이며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했다.

감사라는 말은 아름답고 귀하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인정' '웃음' '기쁨' '미덕'이 있고 인격에 넉넉함이 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이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에너지이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존재하고 일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열쇠'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에게 행복을 선사하면서 아름다운 순간을 안겨 주기도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은 하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배려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생활한다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생각이다. 행복 그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감사는 졸업이 없다고 한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社 說

민주당 텃밭인데 최고위원 한 명 없는 호남정치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지만 당내에서 호남 정치의 위상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말이 지역 정치권에서 상수(常數)가 된 지도 오래다.

8월 2일 치러지는 민주당 당 대표 선거전을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호남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비율이 55%를 차지하고 호남에 그 권리당원의 35%가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과도한 줄서기다. 최근 한 광역의원은 당권 주자가 참여한 행사에서 도에 넘치는 의전으로 원성을 샀다.

국회의원부터 광역 및 기초 의원까지 유력 당권 주자에게 과도한 의전과 충성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 호남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공천을 받아보기 위해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지역 정치인들을 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 또한 호남 정치의 현주소다. 앞선 전당대회에 몇몇 지역 의원들이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도전하는 의원이 없다. 다선 의원들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중앙정치는 포기하고 눈앞의 지방정치에만 올인해서야 호남 정치 복원은 요원할 뿐이다.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진출해야 하는 이유는 호남의 목소리를 정부와 여당에 제대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에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호남 정치인들이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다보니 참다 못해 나오는 목소리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으로만 호남 정치 복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호남 정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발암물질 지하수' 경고 2년째 방치한 광산구

광주 광산구가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 이상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무신경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광주시가 2019년 사업비 10억원을 광산구에 주며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에서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산구의 의뢰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남산단 17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기준치의 최대 466배와 284배나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주로 탈지제나 금속 세척용 공업용 유기용제로 사용된다.

농어촌공사는 오염된 지하수가 주거지역을 거쳐 풍영정천으로 흐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광산구에 제시했지만 광산구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남산단 인근에는 광주 최대 주거단지인 수완지구가 있다. 당시 농어촌공사 조사에선 수완지구 관측정 5곳 중 4곳에서도 TCE와 PCE가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어떻게 지하수 오염 조사를 맡긴 자치단체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방 행정의 현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제 사과문을 내고 감사를 시행해 문제의 원인과 과정,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디지털 휴가

얼마 전 우연찮은 기회에 책 한 권을 받아들었다.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철학의 지혜'. 철학이라는 단어 앞에 괜히 주눅이 들어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펼쳐 들었는데 의외로 어렵지 않았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세네카), "습관은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다. 오늘의 반복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존 듀이). 철학자들의 짧은 문장 속에는 사유와 지혜가 담겨 있었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기도 했다. 45명 철학자들의 글 끝에는 문장을 곱씹으며 따라 써볼 수 있도록 '한 줄 필사'가 마련돼 있다. 한 줄을 베끼다가 나의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내일의 다짐을 적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다.

한때 '필사 열풍'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유명 작가의 문장을 따라 쓰며 마음을 다독이고 SNS에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필사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빠르게 흐르는 시대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는 느린 행위. 펜으로 글자를 옮겨 적는 단순한 행위 속에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시간이 깃들어 있다.

즐겨 보던 TV 예능 '지구오락실'에서 출연자들이 벌칙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받는 장면이 떠오른다. 휴대폰 없이 하루를 보내며 안절부절못하던 그들의 모습이 한편으론 꽤나 공감됐다. 우리도 스스로 휴대폰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리고 눈보다 손이 먼저 화면을 켜는 시대에 '디지털을 잠시 멈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필사는 그런 면에서 아날로그식 디지털 디톡스다.

휴가를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된다. 그늘진 창가나 한적한 카페, 바다가 보이는 방 한구석이나 조용한 도서관 구석 자리. 그런 곳이면 된다. 내 안의 소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책 한 권과 펜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여름의 느슨한 틈새에 어울리는 가장 조용한 휴식이자 나를 위한 작은 위로다.

이번 휴가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과 펜을 들기로 했다. 어디로 떠나지 않아도, 문장 속에서 충분히 쉬어갈 수 있으니까. /이보람 예향부 부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